

李, 시도지사 첫 간담회…광주, 군공항·전남, 특별재난지역 건의

강기정 시장 “AI 중심도시 사업·군사시설 이전 ‘2+4 현안’”
김영록 지사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AI중심도시 조성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전남도는 집중 호우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국가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강 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현장 간담회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자연재난 대응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사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 시장은 광주시의 시급한 현안(‘2+4 현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2가지 현안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AI중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AI컴퓨팅센터 신속 공모 등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연간 4000여명에 달하는 인공 지능(AI)·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인재양성을 기반으로 299개 인공지능(AI)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158개 기업이 광주에 사무실을 개소해 637명이 근무 중이며, 이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광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생활 실증 사업 등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기저부와 마무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국가AI데이터센터를 통해 현재 900여개

기업이 2000여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속도와 집적이 가장 중요한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 집적단지 인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로 건의한 4가지 현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광주군공항, 마북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현안 4개다.

강 시장은 또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다음달 3일 개최 예정인 ‘광주2025세계양곡선수권대회’ 오프닝 쇼에 이 대통령 참석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집중 호우로 전남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난대응과 피해복구 지원을 논의하고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와 전남지역 9개 읍면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올해부터 국고 지원 피해 기간액이 대폭 상향돼 많은 피해지역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 지사는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유일한 보호장치인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50%까지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금 할증률을 30% 이내로 완화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하기로 한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영록 지사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의 99%가 원유·LNG 등 비컨테이너 화물인데, 여수·광양항은 이러한 비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특화된 항만이라서 산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것”을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김영문 전 사회통합비서관 임명

광주시는 김영문(사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을 4일자로 문화경제부시장에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김 내정자의 정부 각각과 리더십이 문화예술·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원적 주체가 얹혀 있는 문화·경제 정책 분야에서 강점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행정 전문성과



김영문

통합 리더십은 민선 8기

시장방향을 문화·산업 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 통합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신산업 유치,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광주 서강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 ‘원더풀’…재인증 청신호

전문가 3박4일 진행…내년 4월 결정
평촌마을 지오빌리지 운영 등 호평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가 호평 속에 마무리되면서, 재인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화순군, 담양군은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2018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3년 재인증에 이어 두 번째 재 인증을 위한 것이다.

현장실사에서는 무등산 정상부, 운주사,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 핵심 지질명소에 대한 해설사 배치

와 보존관리 이행, 지난 4월 지오빌리지로 지정된 평촌마을 프로그램을 운영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실사단으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사에는 유네스코 선정 지질공원 전문가인 일본의 니레 카가야와 중국의 타나 실사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월말 제출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질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 현장을 살펴보고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실사단은 지난 7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와 실사브리핑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장불재, 입석대를 방문해 무등산 주상절리를 확인했다. 이어 30일에는 화순군 내 지질명소(운주사, 서유리 공룡화석지)와 협력기관을 방문했으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담양군 내 지질명소(죽

녹원 등)와 호남기후변화 체험관을 점검한 뒤 광주 시청에서 최종 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인증 심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지침에 따라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존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실사 결과는 오는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두 번째 재 인증을 위해서는 권고사항 이행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그린카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현운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기준에 여전히 부합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지역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땅 1㎡ 1만원…경매 역사상 최저 감정가 낙찰

법원 경매에서 지방의 한 토지 공유지분이 커피 한 잔 값에 입찰에 부쳐져 첫 경매에서 낙찰됐다.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의 토지가 최저 감정가에 입찰해 역대 최저가에 낙찰되는 ‘트리플 최저’ 기록을 세웠다.

3일 경매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는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가 입찰에 부쳐졌다.

사방 30cm 남짓의 이 물건은 전체 1㎡짜리 땅을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으로, 역대 경매 물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다. 지분의 감정가는

5670원으로, 역시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이다.

이 토지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이 일대 전답과 도로 등 4건을 일괄 경매에 부치면서 이날 첫 경매가 진행됐다.

그 결과 1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76.37%인 1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금액 1만원도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으로 면적·감정가·낙찰가까지 모두 최소·최저 기록을 달성한다. 입찰 보증금은 567원이었으며, 이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최저가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의2에 따라 발전 사업의 내용과 대량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 사업주: 금명 유한회사
2. 발전소의 명칭: 신안 해안2차 태양광발전소
3. 발전소의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양해읍 신항리 797 일원
4. 발전소의 면적: 142,073㎡
5.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 용량: 약9.9MW
- 사업 개시 예정일: 2025년 10월 01일
-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10월 - 2046년 10월 (20년2건)
6. 지분구조: 해태스 에너지 코퍼레이션 (지분소유 100%)
7.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신성규
8. 의견제출 기간: 2025년 8월 4일 - 2025년 8월 10일 (7일간)
9. 의견제출 방법: 전화: 02-6285-3980, FAX: 02-6285-3988, E-mail: jinwoo.oh@equis.com
10. 신청사업 정보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양해읍 전사로 1004
- 전화: 061-240-8339
2025. 8. 4.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의2에 따라 발전 사업의 내용과 대량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 사업주: 금명 유한회사
2. 발전소의 명칭: 신안 해안2차 태양광발전소
3. 발전소의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양해읍 본매리 684-7 일원
4. 발전소의 면적: 40,740㎡
5.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 용량: 약9.9MW
- 사업 개시 예정일: 2025년 10월 01일
-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10월 - 2046년 10월 (20년2건)
6. 지분구조: 해태스 에너지 코퍼레이션 (지분소유 100%)
7.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신성규
8. 의견제출 기간: 2025년 8월 4일 - 2025년 8월 10일 (7일간)
9. 의견제출 방법: 전화: 02-6285-3980, FAX: 02-6285-3988, E-mail: jinwoo.oh@equis.com
10. 신청사업 정보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양해읍 전사로 1004
- 전화: 061-240-8339
2025. 8. 4.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회,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